



[라이프] 유통가 테니스·골프 팝업 '활짝' 나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과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소멸위기’ 지방대... “학령인구 맞춰 전체 대학 정원 감축해야”

자율적 정원감축, 수도권 참여 저조 정부 차원 전체 대학 감축 유도해야 일회성 아닌 장기적인 지원 필요

정부는 ‘지방대학 살리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지방대학 미충원 대응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추진한 ‘적정규모화 계획’도 수도권 대학의 참여를 저조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참여 대학 중 일부는 전체 대학 단위의 조정을 유도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적정규모화 계획’의 대상 대학 중 수도권 대학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지방대 미충원 문제 대응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은 자율적 정원 감



박맹수(오른쪽)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원광대 총장)과 이우종 7개권역 대학총장협의회 회장(청운대 총장)이 지난 7월 8일 반도체 인력 양성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지방대학 시대를 일관성 있게 실천하라’는 피켓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뉴스시스

축이 아닌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우종 청운대 총장(겸 7개 권역 대학 총장 협의회 회장)은 “재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을 도와준다는 명분하에 진행된 사업이지만 해당 구조조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비율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수도권 대학의 참여율

이 저조해 다수의 지방 대학들이 다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적정규모화 계획은 자율적 정원감축을 권고하는 것으로, 참여한 대학에게는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14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대상 대학 233곳 중 96곳(41.2%)이 참여했으며 그 중 수도권 대학 참여 비율은 26.2%(84곳 중 22곳)로 가장 낮다.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대학 미충원 문제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학에 적용되는 전제가 요구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15일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이라는 연구 자료를 통해 “더 이상 대학 자율에 기반한 정원감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검토하고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에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전체

대학 정원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규제 혁파, 재정 지원, 지방대 균형발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겠다 했지만 추가적인 정원감축 내용은 가능성 낮다는 분석이다.

이미 정원 감축을 진행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대학도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됐다.

이번 적정규모사업은 정원 감축을 통한 일회성 지원에 속한다. 대학이 정원을 감축할 경우 장기적으로 신입생을 포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시민 “주택정비, 녹지 확대에 투자 필요”

서울시, 재원투자 필요 분야 설문조사 주택 공급 확대, 공원 조성 등 의견

서울시가 시민들이 꿈꾸는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살피고자 시의 재원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가 1순위로, 공원·환경 분야가 2순위로 꼽혔다. 시는 이들 분야에서 세부 중점과제를 도출해내기 위해 시민들과 중지를 모은다.

21일 서울시의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따르면, ‘살기 좋은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후 12시30분까지 총 103명이 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도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에서는 집값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시민 정모 씨는 “주거 문제에 부딪혀 결혼·출산·육아를 포기하는 3포 세대 급증으로 혼인율과 출생률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서 “투기로서의 부동산이 아닌,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다양한 주거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모 씨는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단지 중 재건축을 희망하는 곳은 공적 부담(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을 더 지는 대신 자율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게 하고, 40년 넘은 단지는 별도 규제 없이 조

합 스스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풀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서울시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새 아파트를 원하는 가구는 새집을 구할 수 있고 청약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조언했다.

공원·녹지 확대에 대한 열망도 컸다. 홍모 씨는 “서울시에 공원이 정말 많다”며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마음을 조금 편히 갖게 만드는 공원, 물길 따라 공원을 조성하면 한강변에 물리는 인과 문제를 집 앞 공원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2023~2027년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을 보강해 약자와 동행하는 재정투자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ik1@

‘제로배달 유니온’ 2년새 매출 6배 증가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성과 거둬 가맹점 5만6712개소... 1.8배 늘어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제로배달 유니온’이 출범 2년 만에 연간 총 매출이 6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제로배달 유니온은 민간 배달업사의 높은 중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주도로 만든 민관협력 방식 배달서비스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제로배달 유니온의 가맹점은 출범 초기 3만592개에서 지난달 말 기준 5만6712개소로 1.8배 이상 늘었다. 매출액은 2020년 57억 9800만원에서 올 8월 343억6000만원으

로 약 6배 뛰었다.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도 0.72%에서 3.02%로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제로배달 유니온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대형 배달플랫폼에서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 6~27%를 최대 2%로 대폭 낮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었다는 것”이라며 “현재 제로배달 유니온 소속 배달업은 음식배달 4개사(위메프오·뽕겨요·먹깨비·소문난삼살)와 전통시장·마트 3개사(놀러와요시장·맘마떡자·로마켓) 등 총 7개사”고 설명했다.

시는 제로배달 유니온 출범 2년을 기념하고자 이달 29일부터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현정 기자

인천 송도서 최대 규모 ‘일자리 한마당’

인천 우수강소기업 등 100개 기업 연결

인천의 우수강소기업 등 100개 기업에 취업을 연결하는 ‘2022 인천 일자리 한마당’ 채용행사가 오는 27일 송도컨벤시아 1홀에서 개최된다.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병무지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가 공동개최한다.

3년 만에 열리는 인천시 최대 채용규모의 현장·대면 일자리 채용행사로, 100개 기업이 1,18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청년, 여성, 중장년, 보충역 대상자 등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취업준비부터 현장채용까지 취

업 성공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용관, 컨설팅관, 취업정보관, 부대행사관으로 나눠 운영된다.

채용관에서는 인천지역 우수강소기업 및 뿌리기업, 항만·항공·물류기업, 병역지정업체 등을 포함한 100개 기업 인사담당자가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또 취업정보관에서는 구직자가 유용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설명회와 취업특강, 인천병무지청의 산업지원 인력제도 등 병무행정 설명회 등이 열린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9월 22일(木) 음력: 8월 27일

수도권 날씨 15~24°C

운동 지수, 땀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1/24, 동두천 12/24, 가평 10/23, 파주 11/24, 서울 15/24, 양평 12/23, 인천 16/23, 수원 15/24, 용인 15/24, 평택 13/24

해돋이 06:19 | 해질 18:3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고유가 속 유럽국가들 대러제재 이달 방지에 집중” /사진 뉴스시스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강화키로...쌍룡훈련 5년만에 부활

▲‘아베 국장 반대’ 70대 남성, 몸에 불 질러
▲중국, 밀 수매가격 24% 인상...식량 안보 강조 속 경작 장려



▲우크라이나 실패한 푸틴, 협상밖에 답없지만...젤렌스키에 달렸다
▲여왕 장례식, 7인 40% 시청...다 이애나비 기록엔 못미처 /사진 뉴스시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